

'컴퓨터한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한글표준코드 잘못 제정돼 불편과 폐해 심각

이기성

신구전문대 교수

현재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한글이 전부 다 표현되는 데 반하여, 메인프레임(대형) 컴퓨터에서는 한글이 다 표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인용 컴퓨터도 대만에서 수입된 것이나 용산 전자랜드에서 조립된 저가의 컴퓨터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한글이 다 표현되고 있으나, 정부의 KS 한글코드를 따른 행정전산망용 컴퓨터나 교육용 컴퓨터에서는 한글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

뽕방, 썩, 뽕금, 닝름, 케찰, ㄱ 룹 등을 쳐보면 이 중에서 몇자가 빈칸이나 이상하게 나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현행 한글표준코드(KSC5601-87)가 잘못 제정된 이유이지만, 신문사나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전산조판시스템(CTS)에서도 한글이 일부만 구현된다는 것은 한글에 대한 무관심과 컴퓨터에 대한 공포심 때문으로 본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곳에다 '한글을 다 표현해야 한다' '한글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라는 조건으로 일을 맡겼더라면 한글이 다 구현되는 데 문제점이 없었을 터인데, '컴퓨터는 내 전공이 아니니까' '컴퓨터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 '잘못 말하단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쨌든 한글로 만드는 책이나 신문에서 한글이 다 표현되지 못하여 '쪽자'를 하거나, 한글을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나타내는 현실이다.

데스크톱 출판(DTP)이나 CTS에서 사용하는 한글코드는 한글이 전부 다 표현되는 물론, 초성/중성/종성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한글의 특성을 살린 한글코드이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데스크톱 출판 또는 전산사식 입력기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지? 안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현행 한글코드의 몇가지 문제

첫째, 글자가 다 출력되는가? 혹시 없는 글자가 있어서 쪽자를 하고 있지 않나?

뽕금없이, 닝름, 뽕방각하, 썩시레디, 크린랠, 썩시콜라, 훈글 등 한글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사식기에서 다 나와야 한다. 혹시 자기가 사용하는 사식기에서 안 나오는 글자가 있다면, 이건 창피한 일이다. 수동사식기도 아니고 컴퓨터사식기에서 글자가 모자라다니. 545년 전 세종대왕이 28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한글을 편찬하였다. 발명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사용되던 여러 종류의 한글을 표준화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24개의 자모만 사용하므로 조판시 옛한글이 안나와 고생이 많다. 사식기에서는 자모를 24개에서 4개를 더 늘려 28개의 자모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데이터의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삼보컴퓨터, 큐닉스컴퓨터, 진컴퓨터, 대우컴퓨터, 금성, 삼성, 현대 등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디스켓을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또 출판계에서 새로운 타입의 사식기가 나오면 먼저 사용하던 디스켓을 신형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다. 데이터 외에 조판 명령도 물론 그대로 사용하게 신형 사식기를 제작하는 것이 제작사의 예의이다. 과연 출판사나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셋째, 보석글, 훈글로 작성한 원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디스크에 원고를 써오는 저자나 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출판사 편집부 역시 컴퓨터를 사용하는 곳이 많다. 미국에서 작년에 IBM 호환기종이 84%, 매킨토시가 9%의 비율로 팔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IBM 호환기종이 대부분이고, 매킨토시는 1%도 안된다. 그러므로, IBM 호환기종(TG-88, 알라딘, 솔로몬, 마이티, 프로2000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석글과 훈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데이터는 사식기에서 바로 읽어들이 수 있어야 한다.

전체 한글의 20%만 표현되는 KS규격

방송국에 근무하는 S씨가 집에서 판타기(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메모리(주 기억장치)에 올려놓고, 내일 아침에 방송국에서 촬영할 작품의 대본 원고(방송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데이터디스크에 저장하였다. 다음 날 이 데이터디스크를 들고 방송국에 출근하여, 방송국의 개인용 컴퓨터의 디스크드라이버에 넣고 판타기 프로그램으로 원고를 마저 작성하려고 하니 모니터 화면에서 글자 몇자가 보이지 않는다. "어젯밤에 내가 잘못 쳤나"하고 다시 키보드로 입력시켜도 역시 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글은 세계에서 알려진 과학적인 글자여서 세종대왕의 말따따나 "인간의 소리는 물론 자연의 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왜 방송국 컴퓨터로는 한글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집의 개인용 컴퓨터는 개천(청계천 세운상

현행 한글표준코드를 그대로

따를 경우 컴퓨터는 전체 한글의

20% 정도밖에 표현하지 못한다.

글자가 다 출력되지 않아

쪽자를 만들어 쓰는가 하면,

데이터의 호환성도 없다.

한글을 전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한글의 특성에 맞는

표준코드 제정은 꼭 지켜야 할

두가지 원칙이다.

가)에서 싸게 샀는데도 한글이 다 나타나고, 방송국의 개인용 컴퓨터는 KS규격에 맞춘 비싼 컴퓨터인데 어째서 한글의 일부밖에 화면에서 볼 수 없을까?

"월등하다고 쓰고, 월똥하다고 읽는다. 썩시하다고 쓰지만 사실 발음은 썩시하다고 난다. 크린랠이란 상품이 개발되었다." 라는 문장을 집의 컴퓨터는 다 화면에서 보여주고, 프린터로 인쇄하여 종이에도 다 글자가 나왔는데, 방송국의 컴퓨터는 '뽕, 썩, 랠'의 3자가 화면에서도 안보이고, 프린터로 인쇄하여도 글자가 나타나질 않는다.

화가 난 S씨가 대리점에 전화를 걸었다. "값싼 개천의 컴퓨터로는 한글이 다 되는데, 왜 당신네 대기업의 컴퓨터는 한글이 안나오는 글자가 있습니까?" "그거요. 정부의 KS규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KS규격이면 더 좋아야지 한글이 다 안되나요?" "그게 5공때 국제규격에 맞춘다나 해서 그렇게 한글 KS규격을 잘못 만들었답니다." "아니, 한글을 국제규격에 맞춘다니, 한글은 한글의 특성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그래서 대학생들이 5공때 한글 KS규격을 만든 사람들을 '반국인'이라고 한답니다. 또, 전체 한글의 20%밖에 표현할 수 없는 KS규격 한글을 '반글'이라고 부른답니다." "나는 소설과 방송 원고를 쓰기 때문에 외래어에서부터 바람소리까지 전부 사용해야 하니까, 이 컴퓨터를 바꾸어주세요." "그건 절대 안됩니다." "왜요?" "컴퓨터 생산업체들이 한글이 다 나오지 못하는 KS규격 컴퓨터를 만들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행정전산망용 컴퓨터나 교육용 컴퓨터, 또 정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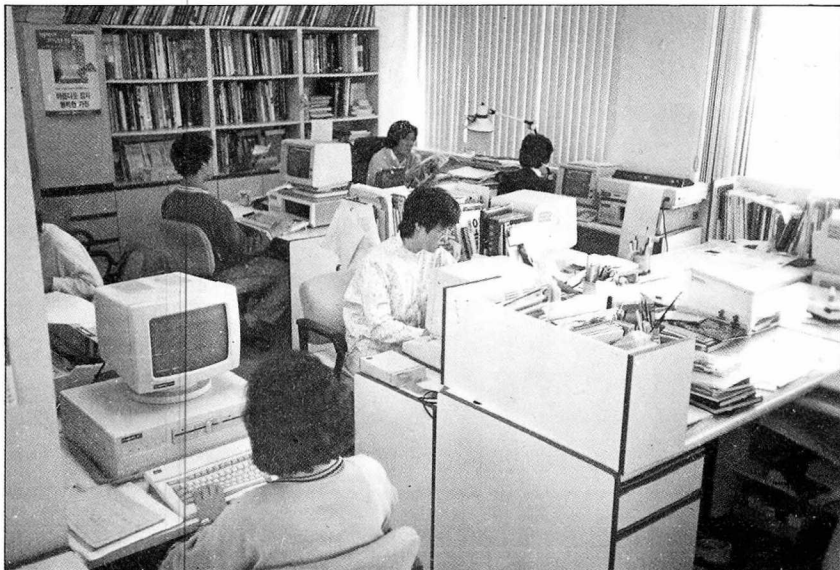
관에서 구입하는 컴퓨터는 무조건 KS규격의 컴퓨터만 구입하도록 시켰습니다. 다시말하면 한글이 100% 표시되는 컴퓨터는 정부에서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한글을 20%밖에 표시하지 못하는 컴퓨터만 구입하도록 한 것이지요."

6공의 언론 자유는 이런 5공비리를 그대로 돌리가 없었다. 조선일보 후원으로 모 단체에서 한글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한다가에 참석하였다. '5공반글을 만든 측'과 '5공반글을 하루빨리 고쳐야한다는 측'의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으니 5공반글을 만들었다고 S씨가 생각했던 표준연구소도 알고보니 억울한 입장이었다. 국제규격에 맞춘 '한글 KS정보교환용 코드'를 5공때 시급히 만들라고 해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끼리 정보교환할 때만 사용하라고 만들어 준 것을 개인용컴퓨터 생산업체들이 잘못 알고 개인용 컴퓨터에도 이 KS규격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는 것이다. S씨는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간다. 아니 그러면 왜 공업진흥청이나 체신부, 문교부는 한글이 20%밖에 안되는 개인용 컴퓨터이어야만 행정전산망용이나 교육용 컴퓨터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가? 아무도 잘못된 사람은 없는데, 왜 KS규격을 따른 내 컴퓨터에서 한글이 80%나 안되나? 이 토론회에 참석한 모 대학교수가 발언권을 얻어서 "우리 한글을 죽인 자는 이완용 같은 X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한글 카드에는 삼보컴퓨터의 KSSM 카드, 대우 한글 카드, 세운상가 한글 카드, 행정전산망용 한글 카드(KS 한글 카드), 도깨비 한글 카드, 일진 한글 카드, 옴니 한글 카드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들 중에는 한자도 들어있는 한글/한자 카드도 있다. 그러나 어느 한글 카드에도 훈민정음 등 우리의 옛한글이 들어 있는 것은 아직 없다.

조한형과 원성형의 문제

컴퓨터의 내부에는 모니터 화면에 글자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비디오 카드가 들어 있다. 미제 컴퓨터에는 이 비디오 카드에 영문자만 들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미제 컴퓨터로는 한글을 사용할 수가 없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컴퓨터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디오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한글 카드를 꽂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글 카드를 꽂지 않고, 허큘리스 카드라는 그래픽 비디오 카



드를 꽂아도 한글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허큘리스 카드나 한글 카드가 컴퓨터 본체에 끼워져 있다고 바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한글 카드에 들어 있는 한글 글자(자모)를 모니터 화면으로 불러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키보드에서 'ㄱ(기역)'을 치고 'ㅏ(아)'를 치면 '가'에 해당하는 글자 모양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프로그램을 짜야지만 화면에 '가'가 보인다.

한글 카드의 1번지에 '가'가 들어 있고 2번지에 '각', 3번지에 '간', 4번지에 '갸', 5번지에 '갈'이 있다. 키보드에서 'ㄱ'을 치고 'ㅏ'를 치고 'ㄴ'을 친다면 '간'이라는 글자가 될 것이다. 컴퓨터의 키보드에서 '간'이라는 글자가 입력되었다는 것을 컴퓨터의 머리(CPU)가 알고서 컴퓨터의 본체에 꽂혀 있는 한글 카드에서 '간'에 해당하는 번지수를 찾는다. '간'이 3번지에 있으므로 컴퓨터 머리에서 한글 카드의 3번지에 있는 글자를 화면에 나타내도록 한글 카드에게 명령을 내린다.

'간'이 들어 있는 번지수는 각기 한글 카드마다 다르다. 보기를 들면 KSSM 한글 카드에서 '간'이 3번지인데 대우 한글 카드에서는 1001번지가 된다. 그러므로 한글 카드마다 한글을 모니터에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게 된다. KSSM 한글 카드용 한글 입력 프로그램은 "만일 키보드에서 'ㄱ ㅏ ㄴ'이 들어오면 3번지의 글자를 화면에 나타내라"이다. 대우 한글 카드용 한글 입력 프로그램은 "만일 키보드에서 'ㄱ ㅏ ㄴ'이 들어오면 1001번지의 글자를 화면에 보여주어라"라는 프로그램이 된

다. KSSM 한글 카드용 한글 입력 프로그램은 CHP.COM이고, 대우 한글 카드용 한글 입력 프로그램은 HAN.EXE 이다. 허큘리스 카드용 한글 입력 프로그램에는 NKP.COM이나 DKBB.COM, THP.COM 등이 있다.

한글 입력 프로그램은 한글 입력기 프로그램 또는 한글 입력기라고도 한다. 한글 카드는 기계이고, 한글 입력기는 기계에 맞춘 프로그램이다. 앞에서 '보석글 한글'이니, '훈글 한글'이니, '하나'니 한 것은 잘못된 말이다. KSSM 한글 카드가 꽂힌 컴퓨터에서 CHP.COM 한글 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문서를 작성할 때 워드프로세서로 '보석글'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우 한글 카드가 꽂힌 컴퓨터에서 HAN.EXE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워드프로세서로는 '보석글'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해야 맞는다. 행정전산망용 한글 카드를 끼우고 HE-CON.SYS 한글 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워드프로세서로 '하나'를 사용하거나 '행망용 보석글'을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한글 카드를 끼웠든 상관없고 한글, 옛 한글,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가 '훈글'이다. '훈글', '한글2000', '쪽박사' 같은 워드프로세서는 컴퓨터에 꽂혀 있는 한글 카드용 한글 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 한글이나 한자의 글자꼴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훌륭한 워드프로세서이다.

컴퓨터 한글 코드의 종류는 N 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등 세가지인데 이중 한글 1자의 길이가 3바이트로 일정한 3바이트 코드가 한글

11,172자 이외에도 옛한글, 한자 전부 표현 가능하다.

한글 코드는 조합형이라도 인쇄할 때는 완성형 글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코드와 글자꼴은 별개이다. 즉, 처리 코드와 출력 코드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보통 이걸 모르고, 글자는 역시 완성형이 예쁜데 '알만한 친구가 조합형 코드를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한글 글자는 많은데, 납활자를 전부다 완성형으로 만들어놓지 못해서 모자라는 활자는 목각(나무활자)을 파는 것을 생각해보자.

한글 코드는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같은 것이고, 글자꼴 코드(출력 코드)는 납활자로 비유해보면 된다. 그러니까 한글 코드는 모든 한글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글자꼴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완성형으로 만들어놓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컴퓨터가 초성/중성/종성의 글자꼴을 조합해서 쪽자로 만들어 주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훈민정음 등 옛 한글도 다룰 수 있어야

한글에는 한글 이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와 우리의 조상이 사용하던 한자와 이두 글자가 있고, 훈민정음에서 사용하던 옛 한글이 있다.

훈민정음에서 표기하는 글자의 자모를 자음과 모음의 28개로만 아는 수가 많은데, 사실은 세종대왕이 외래어와 외국어의 표기용까지 제정하였다.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용까지 발명해서, 초성 65자모, 중성 36자모, 받침 60자모로 약 8만자의 글자를 조합할 수 있는 기막힌 글자이다.

또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자모는 24개인데, 요즈음 젊은 층에서 아래아(ㅏ) 자소(음모)가 살아나고 있다. 또 방언 중에는 순경음 등 24개 이외의 4자소 중 몇개가 아직까지 살아있기도 하다(제주도). 24개의 자모만으로 조합 가능한 글자만도 11,172개인데, 현재 표준규격(KS)은 이중에서 2,350자만 표현가능하므로 총 글자의 20%를, 훈민정음 같은 옛한글을 포함하면 약 8만자 중에서 KS 2,350자는 총한글 중에서 단지 3%만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한글을 반의 반만 사용하도록, 다시 말하여 한글을 20%로 줄여버린 사람들을 '반국인(반쪽 한국인)'이라고 하고, 이들이 죽인 KS한글을 'KS반글'이라고 대학생들이 부른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반국인도 이유는 있다. 그들은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한글의 특성인 모아쓰기를 안하고, 일본어처럼 완성형으로 KS를 정했다고 한다. 또 한글의 글자수를 반의반으로 줄인 것도 국제규격에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우선 우리나라 자체에서 국민의 의사 소통이 자유스러운 다음에 국제간의 통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만일 우리가 국제규격을 정했는데, 영어 단어를 20%밖에 못쓰도록 해놓았다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그걸 지키느라고, 영어 단어수를 줄이겠는가? 아니다. 우선 영어문자권의 표준을 만들어서 영어는 제대로 사용하면, 국제규격을 만든 나라들에게 영어의 특성은 이리이러하니, 국제규격을 수정하자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컴퓨터에서 한글을 전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코드는 한글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라는 2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가 보통 '한글'이라고 하면 광의의 한글을 의미한다. 즉, 현재 사용하는 표준 한국어를 적는 한글, 아래아/순경음 비음 등을 사용한 옛한글, 또는 방언, 현재 사용하는 한자,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나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한자, 이두글자 등이 전부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중에서 현재 사용되는 한국글(협의의 한글)은 당연히 컴퓨터에서 전부 다 구현되어야 하며, 옛한글 중 훈민정음에 사용되는 글자들도 물론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3일 과천의 공진청 건물에서는 한글, 한자 코드 표준화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컴퓨터에서 사용될 한글과 한자의 코드를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는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이기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 공청회에 참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제기된 문제 몇몇을 소개한다.

"현재 제정된 KS코드 자체도 국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말썽이 있는데, 이를 국제 표준화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내에 한글코드와 직접적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만도 20여개가 넘는데, 공진청이 일부 특정 단체와만 한글 한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글 한자코드의 표준화업무는 공업진흥청이 아닌 어문출판 담당부서가 주관이 되어야 하니, 문화부로 이관시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한글과 한자의 표준코드를 정해야 한다."